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학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업이라 어떤 작품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더러 받는다. 평론가마다 다 다를 그 대답에 접수를 매긴다면,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답은 아마 나뉠 접수를 받을 법하다. 진부한 데다 별 뜻도 없는 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작가들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깊이라는 게 뭐냐고 불평을 터뜨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그리 싫지가 않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좋은 작품에는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의 깊이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어 본 작가는 내일의 햇살에서도 영혼을 느낄 것이다. 내게 작품의 깊이란 곧 ‘인간 이해’의 깊이다.

대통령, 크게 아파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게는 한 인간의 깊이 역시 인간 이해의 깊이이다. 인간의 무엇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인가. 그중 하나로 나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답을 말할 것이다. 이 대답 역시 진부하게 들린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진부해지기능커녕 날마다 새롭다. 세상에 진부한 고통이란 없으니 저 대답도 진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투표할 것이다. 깊은 사람에게, 즉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에게 말이다. 국민과 함께 슬퍼할 줄 몰랐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각오를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깊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내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고통의 공감은 일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한심한 한계다. 경험한 만큼만, 느껴본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공부라 필요하다

고 늘 생각한다. 자의든 타의든 타인의 고통 가까이에 있어 본 사람, 많은 고통을 함께 느껴 본 사람이 언제 어디서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이 낸 책을 읽었다. 나는 그들이 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폈다. 청년 시절의 그들은 누구 하나 못난 사람이 없었다. 모두 수재였고 좋은 대학에 갔으며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대로로 곧장 걸어가고 어떤 이들은 엉뚱한 길로 접어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수십 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 따위가 아닌 것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대다수는 자신에게 편한 길을 택하며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못된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도 고통이 더 많은 쪽으로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다른 이들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입신출세한 사람을 선망은 할 수 있어도 존경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고통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

람, 타인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자신의 노력을 포기한 사람들만을 존경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대통령이 부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혹자는 성품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다. ‘성품이나 능력이나’라는 물음은 잘 못된 양자택일이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성품이 곧 능력이다. 실무적 능력이야 해당 분야 실무자의 덕목이면 될 일이다.

환상을 품고 있지는 않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구세주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이 오늘의 그를 믿게 한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과 그것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치명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귀가 없을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을, 반값 임금을 촉사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을, 차별 당하는 소수자들의 말을 말이다. 그 고통을 알겠어서, 차마 도망칠 수 없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다. 대통령(大統領)이 대통령(大統領)이면 좋겠다. 우리 중에 가장 크게 아파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社說

‘세월호 7시간’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절박하고 잔인한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화, 다윤이, 현철이, 영인이 이들 4명이 살아 있었으면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나이”라는 가족들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난다.

한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비밀’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최종 15~30년간 봉인됐다는 소식이 또 우리를 슬프게 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사고 보고서가 대부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당장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은폐되고 말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일정기간 ‘봉인’할 자료들을 말한다.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봉인 기간은 최장 15년이지만,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예외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정 권한을 대신 행사했다.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이제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인가. 물론 지정기록물이 되었어도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으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청와대가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면서 진실 규명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이다.

전두환 회고록은 마땅히 판매 금지해야

5·18 기념재단이 이달 중으로 ‘역사 쿠데타’와 다른없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5·18기념재단은 “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이전에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회고록 전체(3권)를 배포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예비적으로 ‘5·18 관련 허위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재단은 회고록 3권에 대한 분석을 거쳐 5·18 관련 허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

결문(내란목적 살해 등·1997년 판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전일빌딩 헬기사격 총탄 흔적) 등 각종 기록물을 법률대리인 측에 건넸다.

하지만 전두환 회고록이 이미 지난 달 초 시중에 배포돼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책이 하루빨리 법적 제재를 받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실익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은 특히 이번 소송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5월을 왜곡·변형하는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삼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 숨진 이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종교칼럼

붓다로 살자

통이 시작됐고, 왕비는 향기로운 꽃을 피운 아소가 나무에 기대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아소가 나무 아래서 태어난 아이는 점차 싯타르타로 불리었다.

아기 왕자는 사방을 둘러보고, 북쪽으로 일곱 걸음을 걸었다. 걸음걸음 발밑에서 연꽃이 솟아올라 발에 흠이 묻지 않았다. 일곱 걸음을 걸은 아기 왕자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온 세상에 오직 내가 존귀하네. 중생의 세상은 모두 괴로우니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하고 외쳤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며, 아홉 용들이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을 하늘에서 뿌려 왕자를 목욕시켰다.

인간의 아들 싯타르타의 탄생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탄생에 중요한 상징을 담기 위하여 설화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테면 일곱 걸음은 여섯 갈래 운회하는 중생의 삶을 뛰어넘는 것을 상징하고, 연꽃이 발을 받침은 어려서부터 번뇌의 티끌에서 벗어난 깨끗함을 성취함을 상징하고, 그 선언은 부처님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르칠 깨달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땅이 흔들림은 세상을 뒤흔들 사건이라는 의미이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꽃비가 내리며, 아홉 마리 용이 물을 뿌린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오랜 건기가 끝나갈 무렵 낮에 내린 반기운 소나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각자의 삶도 이런 놀라운 표현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원래 위대한 분이고 우리는 못난 사람이라는 관념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진실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의 태어남도 거룩했고, 우리의 살아감도 거룩하다. 다만 거룩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반복한다고 할까.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은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쳤고, 그 순간 도둑이 됐다. 그러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선형을 할 때 그는 천사였다. 나아가 마차에 깔린 노인을 구할 때는 슈퍼맨이었다. 그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계속 변해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옆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에게는 어떤 사람일 때의 천사가 되고, 험담하고 비난할 때는 악마가 된다.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은 없으며, 우리

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에는 변하지 않는 나와 그가 있다. 자베르 형사가 그랬다. 그는 오욕해도 장 발장을 오직 범죄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보았다. 그 고정관념의 틀은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고, 삶의 의미가 됐다. 그러다가 장 발장이 혁명군의 포로가 된 자신을 구해주자 범죄자 장 발장이라는 고정관념과 구원자 장 발장이라는 현재의 모습 사이에서 번민하다가 자살을 선택한다. 고정관념이 현실을 자각하면서 깨뜨려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리라.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다. 흙치면 그 즉시 도둑이고, 흙치지 않으면 그 즉시 도둑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본래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진리를 분명히 보고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부처노릇 하면 부처라고 부르고, 부처노릇 하지 않으면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관건은 부처노릇이니, 낯설고 어렵더라도 부처노릇 해 보면 어떻게. 그러면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방방곡곡이 모두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일테니.

기고

어린이날, 어른에게 고(告)함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 어린이날은 누구를 위한 어린이날인지 잘 모르겠다. 언뜻 보면 세상이 어린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한 듯 보이기도 하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백화점에는 어린이날 선물들이 즐비하고 놀이공원들도 대규모 어린이 손님들 맞을 준비에 한창 떠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어린이는 어디까지나 어른들이 마련해 놓은 각종 소비재의 주 객체가 되었을 뿐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위해 만든 그 기본정신은 실종 된지 오래되었고 상업주의에 온통 휩쓸려 선물과 함께 즐겁게 하루 노는 날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오늘의 어린이날을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한 대목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해졌고 교육 환경도 나아졌다. 그렇지만 요즘 어린이들이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결식 아동이 전국적으로 수십 만명에 이르고 부모이혼으로 상처입은 아이들이 수천 명이다. 해마다

아동학대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6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30명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다. 오늘도 초등학교 대다수는 하교 후에도 학원을 오가며 10시간 이상 책상에 붙잡혀 있다. 한창 커야할 나이 임에도 하루 8시간도 못 자는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한다. 대부분 어른들의 이기심에 어린이 인권은 실종돼버린 형국이다.

어린이는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잠재적 뉴리더들이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진 뉴리더로 성장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존감도 가져야 한다.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과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글로벌 리더로서 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아닌 또래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은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신이 가진 생각과 뜻,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소통은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에, 따라서 어린이기부터 상대방과 올바르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리더로 가져야 할 자질의 출발은 결국 건강한 가정이다. 어린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려면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부모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 하루 아이들이 원하는 물질적 제공으로 끝낼 게 아니라 뉴리더로서 밝고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어린이로 키울 것을 다짐해보면 어떻게?

어린이날 단 하루가 아닌 날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나는 새처럼, 활짝 핀 꽃처럼, 달리는 시냇물처럼 환하고 행복한 웃음을 보고 싶다.



이동진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소파 방정환은 1923년 3월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색동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뒤에 기념 행사를 열었다. 기념행사의 표어는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와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였다.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임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로 95회째 어린이날을 맞는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지금의 어린이날이라면 과연 필요한지 되짚어볼 필요도 있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발 이방카 트럼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근래 보기 드문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네포티즘’(Nepotism)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논란의 요지는 “선거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이방카 부부가 ‘대통령의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하는 것이다.

미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말 칼럼을 통해 “트럼프 일가(一家)에 의한 네포티즘이 미국 민주주의의 명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네포티즘이 이제는 미국에서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유권자로 부터 한 표도 받지 못한 이방카 부부가 사실상 백악관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근대 서방 민주주의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잘 알려져 있듯, 네포티즘은 중세 때 로마 교황들이 자신의 사생아를 정부 요직에 앉히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조카(nephew)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단어다. 권력자가 자신의 친·인척만을

중용하는 ‘족벌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은 ‘아는 사람만 오직에 앉힌다’는 정실 인사 또는 연고주의로까지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단어가 아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는 ‘자기 지역 사람 챙기기’가 거의 노골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TK(대구·경북) 챙기기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국내 32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

감사 41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TK와 PK(부산·경남)를 합친

영남권 출신 인사가 모두 159명으로 38.4%나 됐다. 59명으로 14.3%를 차지하는 데 그친 호남 출신 인사의 3배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런 네포티즘은 정부와 법조계 및 금융계에서도 예외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후보가 ‘족벌주의, 연고주의 타파’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또 다른 최순실, 또 다른 이방카의 출현은 반드시 ‘촛불’을 부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홍형치 사회부장 redplane@

<p>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p>	<p>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p>
<p>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 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광고문의 062-227-9600</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